'진짜' 은행사이트서 계좌이체했는데 수천만원 사라져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온라인뱅킹 이용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메모리 해킹'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 신고가 112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6억9500만원에 이른다"며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모리 해킹'은 컴퓨터 메모리에 악성코드가 상주해 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종료한 뒤에도 보안등급 강화 명목으로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떠 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과거 피해자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가짜 은행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게 하는 '파밍(Pharming)' 사기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것이다.

/정인 기자 mjkim@

단돈 1050원 'N버스 바캉스'

지난 21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이미 버스가 끊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어린사에 다니는 배모(31)씨는 "막바지 여름밤을 즐기고 싶어 친구들과 '심야 버스' N26번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무더운 여름밤이 계속되면서 1050원짜리 심야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야간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는 N26번과 N37번 두 개 노선으로 자정이면 깨어나 오전 5시까지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빈다. 원래는 막차를 놓친 시민의 귀가를 돕는 목적으로 운행됐지만,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간 투어족들의 발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날 N26번 버스에는 오전 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도 눈에 띄었다.

직장인 최모(32)씨는 "주말이면 여자친구와 홍대나 신촌에 내려 밤거리를 거닐거나 새벽까지 문을 여는 종로 맛집·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강서 차고지를 출발해 홍대·신촌·종로·동대문을 거치는 N26번 버스는 청계천의 시원한 밤 풍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종로 1가부터 동대문까지 어느 정류장에 내려도 청계천과 연결돼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다.

막차 놓친 서민들의 발 심야버스
동대문·청계천·홍대앞 등 씽씽
쇼핑·피서·식도락 3종세트 선물
막바지 여름 심야투어 코스 각광

올빼미 쇼핑족인 대학생 이혜정(22)씨 역시 N26번 버스를 애용한다. 동대문에 내리면 도매시장에서 '새벽 쇼핑'을 맘껏 즐길 수 있어서다. 이씨는 "쇼핑을 마치고 표지판을 따라가면 낙산공원의 야경이 펼쳐진다"며 "산책 코스가 24시간 개방돼 달빛 아래 낭만도 만끽하기 좋다"고 말했다.

◆ 야식 맛집 찾아 '서울 버스 투어'

또 다른 노선인 N37번 버스는 '맛집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서대문 한남오거리·강남 대치동 가락시장을 거쳐 송파 차고지에 도착하는 이 버스는 '맛 기행'을 떠나기에 그만이다.

연신내역에 내리면 손칼국수 포장마차 골목, 한남오거리에는 '한국판 심야식당'으로 통하는 이태원 장진우 식당, 신사동의 게장 골목까지 유명한 야식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최고의 노선이다.

주부 김명선(43)씨는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을 위해 'N37번 버스' 장보기 투어를 종종 나선다. 김씨는 "시원한 버스를 타고 야경도 즐기고 가락시장에 내려 새벽 도매시장의 활기를 느끼다 보면 더위를 금세 잊는다"며 "싱싱한 제철 농수산물 역시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새벽 귀갓길을 돕기 위한 심야버스가 무더위를 달래는 역할까지 할 줄 몰랐다"며 "8개 노선으로 심야버스 운행이 확대되면 더 다채로운 서울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심야 버스'로 야간 서울 투어에 나선 사람들이 청계천, 동대문, 홍대 거리에서 막바지 여름밤을 즐기고 있다. /손진영 기자

수능 원서접수 시작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9급 공시' 27만명 도전

내일 시험 치르는 16개 시·도 21.7대 1… 서울은 11만명 몰려 85대 1

올해 1만여명을 선발하는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 필기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4일 시행된다.

서울시 지방직 9급 공채는 9월 7일 별도로 치러진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실시하는 16개 시·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선발인원은 9269명으로 16만3149명이 원서를 내 평균 경쟁률이 17.6대 1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9급 공채 시험은 1297명 선발에 11만393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평균 85.1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구시가 280명 모집에 1만1358명이 몰려 40.6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시 26.4대 1, 광주시 21.4대 1, 전북 20.5대 1, 부산 20.2대 1 순이었다. 전남과 충남, 충북은 모두 12.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공무원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린 지방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1505명 선발에 3만2596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21.7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행정직군은 6690명 선발에 13만8765명이 몰려 20.7대 1로 뒤를 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직군은 기술직군으로 2579명 선발에 2만4364명이 응시해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9~10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되고 최종 합격자는 11월 말 발표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난에 사회복지인력 등 선발이 늘어나면서 응시예정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고졸 지원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윤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사동 69개 소단위 나눠 35년 만에 정비

서울 인사동이 35년 만에 개발 제한이 풀려 소규모 분할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22일 "인사동 161번지(승동교회 주변) 일대 3만1077㎡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사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골동품점·표구점·필방·화랑은 권장하고 화장품점·커피전문점·노래방 등 업종은 불허된다. 서울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소단위 맞춤형 정비는 이번이 첫 사례다. 69개 구역의 건폐율은 60%에서 최대 80%까지 1~2층으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는 3~4층까지 완화된다.

아이돌 스타의 '동대문 패션'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 주말 동대문의 한 쇼핑몰. 가을옷으로 멋을 낸 아이돌 그룹 2AM의 임슬옹이 런웨이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디자이너 패션의 대중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동대문 롯데피트인에서 상설 패션쇼를 열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런데 과연 이 행사가 가난한 신진 디자이너들과 죽어가는 동대문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는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업계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실 그동안 동대문 디자이너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를 앞세워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지만 대부분 주최 측이나 기성 디자이너들의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전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낫다'며 기대에 차 있다. 행사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임동환 팀장 역시 희망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런 행사가 끝나면 '보여주기식'이라는 안 좋은 평가를 내리지만 정작 신진 디자이너들에겐 새로운 판로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패션쇼는 한류 열풍으로 위상이 높아진 K-패션을 동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막을 올린 상설 패션쇼가 동대문의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SPA 브랜드에 치여 데뷔 기회조차 잃은 신예 디자이너들에겐 소비자와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본다.

뉴스&뉴스

"불법사찰 당한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불법 사찰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과 부인 이모씨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 지원관실 전 조사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남 의원과 이씨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주저앉은 이당 의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한 사람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오른쪽) 의원이 22일 오후 청와대로 행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바닥에 주저앉아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길 "천막투쟁 강도 높일 구체적인 방안 검토"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시간 두자가 양분되는 만큼 천막에서의 강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이 천막 투쟁을 접는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유리기자

대학생·청년인턴 300명 모집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대학생 인턴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에 참여할 기업 및 구직자를 각각 모집한다.

19일 G밸리 대학생 인턴 100명 모집을 시작으로 9월 중 청년 인턴 200명을 모집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 02)860-2045

가정용 하수관 내시경 진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22일부터 개인 하수관로 내시경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 신청을 받아 최근 구입한 폐쇄회로(CCTV)를 내장한 '하수도 조사장비'로 가정용 하수관 내부를 직접 살피며 문제점을 진단한다.

문의 02)2600-4954

붕어빵 부녀 22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2013학년도 후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부모님과 기념 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가계빚 1000조 '초읽기'

2분기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 탓 17조원 늘어 · 980조 또 사상 최대

올 2분기 가계부채가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980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종전 최대치는 지난해 4분기의 963조8000억원이었다.

가계신용은 올 1분기에 7000억원 줄면서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예금은행 대출 잔액이 1분기 4조9000억원 감소에서 2분기 5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 대출도 3조원 증가한 149조400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이 전 분기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125조1000억원이었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38조8000억원, 21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3000억원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 상승, 정부의 추가 주택대책 발표, 이사철 가계대출 증가 연말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준기자 min @metroseoul.co.kr

서울 택시요금 2800~3000원

추석 이후 인상될 듯

추석이 지난 후 서울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800~3000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노사가 기사 임금을 약 23만원 올리기로 합의한 데 따라 택시요금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인 택시기사 임금은 운송원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400원으로 400~600원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노조 측은 최소 3000원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2~3월 간 운송원가를 계산한 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요금 인상 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인택시 노사는 기사 임금 총액을 현재 114만4368원에서 137만4624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김문석기자 sm**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6개월간 5만여정 유통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이라 속여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유통총책 이모(45)씨와 인터넷 유통업자 이모(4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국내로 들여와 재포장해 1억8500만원(5만5000여 정) 어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남부선 부지 문화·휴식공간으로”

시민단체 워크숍서 주장 “거제역~수영역 고가하부 공원화”

내년에 완공될 동해남부선 복선화 이후 폐철도 부지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21일 시민단체들의 동해남부선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잇따라 열렸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후 7시30분 해운대문화회관에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주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9.8㎞에 이르는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경희 푸른길 사무국장은 2003년에 착공된 광주 폐선 부지의 '푸른길'을 성공 사례로 들며 "시민들의 헌수기금을 받아 시민의 이름으로 푸른길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선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고 철도역 건물은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 교수는 일본 오다루 테미야 폐선 부지가 각종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들며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도 문화와 경제의 집적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동해남부선과 같은 산업 유산은 좋은 입지 여건을 살려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부산녹색도시포럼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을 통과하는 동해남부선 총 39㎞ 중 동해남부선 복선화 이후 거제역~수영역 간 고가 하부 공원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가단조경기술사사무소 윤안규 대표는 "해운대 구간(수영역~좌천역) 약 750m는 고가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녹지 중심으로 활용하고 동래 구간(안락역~교대역)은 철도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서 공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문화 예술과 연계한 생활형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표는 "고가 하부를 활용하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부산시민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문구역~거제역은 인근 벽조타운과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만큼 운동 공간을 갖춘 주민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고 폐선을 철거해 버리기보다는 원형을 보존해 역사를 살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뉴시스

남항 호안 정비 마무리단계

해양수산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가 컸던 부산 남항 호안을 정비하고 주민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안은 바닷가나 강기슭 제방이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그러나 부산 남항 방파호안에는 방파제 등 외곽 시설이 없어 태풍이 올 때마다 인근 주거지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광역시를 지원해 2010년 5월 정비에 착공,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보강 공사는 완료하고 해상 조망로 난간, 벤치·파고라 포장 등 부대시설 설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등 주민 여가 공간으로 사용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넘어온 바닷물을 배수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규용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호안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이나 해일 발생 시 저지대 주거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소에는 주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 흐르는 구포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최근 구포역 상선 방면 약 240㎡ 넓이의 담벼락을 지역 주민과 함께 그림으로 새롭게 꾸몄다고 22일 밝혔다. /구포역 제공

폴리텍대 동부산캠퍼스 재능기부 봉사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황천원)는 지난 21일 부산시 장전동 소재 (사)선이음에서 나눔문화 확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제1차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車 부품기업 러시아·동유럽 공략

모스크바 전시회 참가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러시아와 동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Moscow powered by MIMS)에 부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관에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하나모터스 등 자동차 부품 기업 5개사가 부산의 대표 기업으로 참가한다.

부산시는 이들 참가 업체에 ▲부스 임차비 ▲바이어 알선, 통역 및 물류비 ▲참가 업체들에 대한 무역 상담 관련 제반 사항 등을 지원한다. 또 사후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 업체의 시장 개척 및 수출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지속적인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자동차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우수한 품질 및 기술력에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부산관에 참여하는 참가 업체들은 생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돼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전시회의 부산관을 통해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부산 슬로건'을 부각시켜 부산시 홍보 및 해외 바이어의 부산 방문을 유도하고 부산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베트남·캄보디아 적시다 해외봉사단 사진전 개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 통로에서 희망, 나눔, 그리고 행복 '베트남·캄보디아를 적시다'라는 테마로 문화·의료 해외봉사단 활동사진전을 펼친다.

이번 사진전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벌여온 학교 및 장애아동시설 교육봉사, 문화 교류 활동, 의료봉사활동을 담은 사진 80여 점과 활동 영상이 전시된다.

사진전 개막식은 26일 오전 11시 40분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 통로에서 지난달 베트남(호치민시) 및 캄보디아(프놈펜시) 빈곤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대학생과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30일 이후에도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온종합병원 건물 안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쇄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흥락
편집국장	조한표
부산지사장·주재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8-2800
독자센터	02)721-9785

2002년 5월 8일 등록 서울특별시 서울 가00000

“CT 재촬영 가급적 안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환자 안전·비용 절감 위해 준수

의료영상기기에 의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촬영을 원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총 35만 명이며, 전체 CT 촬영자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환자들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타 병원에서 촬영한 의료영상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을 한 영상 CD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안상부 과장은 "방사선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나 의료 피폭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얻어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신중히 검사를 진행한다"며 "의료진들은 피폭과 정보 획득이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CT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부터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피폭량을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을 수도권 일부 병원에 보급해 CT 촬영 시 환자에게 가해지는 방사선 피폭량을 신체 부위별로 파악하는 이력 관리에 착수했다.

<반값 임대주택>

잘나가는 '햇살둥지' 사업

영도구 원룸 10실 리모델링 '2단계 입주식' 가져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싸게 임대해주는 '반값 임대주택' 공급사업(이하 '햇살둥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영도구 태종로 햇살둥지에서 '햇살둥지 2단계 입주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햇살둥지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빈집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총 107세대 163명이 입주했다.

이번에 입주하는 영도구 태종로 395번길 11의 햇살둥지는 종교단체 교당으로 사용하다 방치된 곳이다.

시는 이곳을 '햇살둥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건물주가 1억7000만원을 부담, 원룸형 10실로 리모델링했다.

이 시설은 영도구청과 건물주의 협약에 따라 인근 해양대학교와 고신대학교 학생 등 6명에게 향후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인 한 가구당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20만원으로 임대된다.

시는 대학생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을 올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빈집 100채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훈련도 실전처럼 '2013 을지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경남 사천시는 지난 21일 오후 벌용동 유두공원에서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가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가졌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육군 8357부대 4의대 장병들이 적 침투에 대비해 경계를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김해경전철 적자분담비율 소송 내달 3일 선고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 적자를 민자 시공사에 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달 3일 내려진다.

22일 부산·김해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해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제기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내달 3일 선고한다.

앞서 김해시는 2012년 9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부산시를 상대로 경전철 적자 부담 비율 60%(김해시) 대 40%(부산시)는 부당하다며 5대5 조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3월 4일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김해시는 중재원의 판정은 민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판정 이유가 맞지 않다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20일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MRG 부담 기간인 20년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

늦여름 제대로 즐겨볼까

부산롯데호텔 9월 한달간 '레이트 서머' 패키지

부산롯데호텔은 '늦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레이트 서머(LATE SUMMER)' 패키지를 9월 한 달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패키지 트렌드 변화에 기여했다.

레이트 서머 패키지는 피스풀(Peaceful), 조이풀(Joyful) 패키지로 구성되며, 조이풀 패키지에 추가로 '만원의 행복' 패키지도 만날 수 있다.

먼저 피스풀 패키지는 디럭스룸과 해운대해수욕장 셔틀버스로 구성된다. 가격은 주중(일~목요일) 기준 15만원이다. 조이풀 패키지는 디럭스룸과 2인 조식, 해운대 셔틀버스와 2인 사우나 이용권이 포함된다. 가격은 주중(일~목요일) 기준 20만원이다(세금 및 봉사료 별도).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만원의 행복이다. 조이풀 패키지의 구성에서 클럽라운지 2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클럽라운지 혜택은 아침에는 조식, 점심에는 애프터눈 티 서비스로 간단한 디저트와 차를, 저녁 시간에는 해피 아워로 맥주, 양주 등과 간단한 안주류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만원의 행복 패키지의 가격은 주중(일~목요일) 기준 22만원이다(세금 및 봉사료 별도).

해운대 셔틀버스는 호텔에서 총 2회, 해운대에서 총 2회 출발하며,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추가 인원 조식은 성인 2만5000원, 소인 1만7000원이며 하이디럭스 객실 또는 클럽 디럭스 객실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각각 3만원과 7만원의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또한 호텔 이용 시 전 식음업장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드엘스파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롯데호텔부산 체험 프로그램 LTE로드도 최대 4인까지 무료 이용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 051)810-1100

부경경마공원 여성고객 행사

부산경남경마공원(본부장 김학신)은 제14회 코리안오크스(GII) 대상 경주를 맞이해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무료 입장 및 먹거리와 각종 놀거리를 제공하며 네일아트와 페디큐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댄스타임 및 경품 이벤트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경경마공원 CS마케팅팀 관계자는 "부경경마공원에 여성 고객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활성화해 많은 여성 고객들이 경마를 접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etro Russia

metro Mexico

싱크홀 등 현장출동 4인조 청년 고발단 화제

최근 네 명의 멕시코 청년들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데 발 벗고 나서 화제다. 4인조 청년 고발단의 탄생은 휴스턴(Houston)-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청년은 멕시코 전역을 다니며 일상에 방치된 문제들을 생생이 카메라에 담는다. 이 영상은 매주 목요일 케이블 채널의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영된다. 이들은 도로 곳곳이 주저앉아 생긴 초대형 싱크홀을 고발하기 위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줄넘기를 뛰어넘으며 싸움 경기를 벌이는가 하면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펼쳐 문제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강조한다.

/가브리엘라 로가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Canada

퀘벡주 공무원에 터번·히잡 착용 금지 추진

캐나다 퀘벡주 정부가 터번,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퀘벡주 정부는 학교 교사나 병원 의료진 등을 포함한 주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크교 터번이나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니캅 또는 유대교인들의 모자 키파 등 종교를 상징하는 복장을 금지할 방침이다.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십자가 목걸이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퀘벡에서는 최근 주 축구협회가 청소년 선수들의 터번 착용을 금지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정리=이국명기자

metro HongKong

3高 홍콩여성 "대륙男 괜찮네" 결혼 급증추세

대륙 문화를 동경하는 홍콩인이 늘어나면서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홍콩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홍콩 남성과 중국 여성 간의 결혼이 대부분이던 과거와는 달라진 풍속도라는 설명이다.

정부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홍콩인의 결혼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비율이 39%에서 56%로 증가했다. 16년간 누적 건수는 40만 건에 이른다. 홍콩 남성과 중국 여성의 결혼이 여전히 많지만 평균 약 2만 건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다. 반면 홍콩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은 1986년 675건에서 6785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홍콩진사회 루웨이지 연구주임은 "중국 재벌 2세와 결혼하는 홍콩 여스타가 점점 많아지면서 홍콩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홍콩결혼중개인계도 "현재 가입한 홍콩 여성 대부분이 3고(고학력·고학위·고수입) 여성"이라며 "이들은 중국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조건이 비슷한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해 홍콩 남성들만 대륙에서 배우자를 찾던 전통을 깼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진사회가 중국·홍콩 부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 묻은 결과 73%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94%에 달했다.

/정리=이국명기자

살인현장만 도는 '오싹 투어'

리시아, 무더위 퇴치 이색 여행상품 등장…악명 높은 마피아 쿠마린 숨진 곳도 포함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경한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이 같은 이색 관광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메트로 페테르부르크에 따르면 이색 관광은 페테르부르크 예술 광장에서 관광버스로 출발해 콘단카 장기슭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관광 코스에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 블라디미르 쿠마린 등이 살해된 장소도 포함돼 있다.

지난 15일 관광에서 투어 가이드 다리아나 마케예바는 "이곳은 페테르부르크 시립 병원의 시체 안치소였다"고 설명해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이곳이 1923년 유명한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보스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라며 "당시 사람들은 그가 살해됐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버스가 멈춘 곳은 마피아의 소굴로 유명한 카페 '바람의 장미'가 있던 장소였다. 1970년대 이곳에서 잡역부로 일을 시작했던 건달 쿠마린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물급 마피아가 됐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쿠마린이 이 카페의 입구에 서서 많은 건달들과 서성이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이곳에서 쿠마린이 이끄는 탐보프스키야 마피아의 역사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버스가 멈춘 곳은 1997년 8월 17일 전 페테르부르크 부시장 미하일 마네비치가 의문의 살해를 당한 장소였다.

마케예바는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색 아이템을 찾던 중 오싹한 범죄 관광 코스를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는 코스도 있다. 이 코스를 선택하면 마피아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제작된 반딧스키 페테르부르크(무법의 페테르부르크)의 촬영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서고리 카우세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영화홍보 '모바일 라이브' 시대

'더 울버린' '설국열차' 등 최근 개봉작품 쇼케이스 스마트폰 시대 맞춰 스트리밍 플랫폼 생중계 내서

지난달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열광적인 록 뮤직 콘서트가 끝나고 어두운 조명이 깔리자 휴 잭맨이 등장한다. 레드카펫을 걸으며 휴 잭맨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국 팬들과 셀카를 찍는다.

같은 시각 지하철 퇴근길에 오른 영화광 김상혁씨는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유스트림'에 마련된 '더 울버린' 쇼케이스 생중계(왼쪽사진)를 시청하며 휴 잭맨 내한 행사 현장에 간 듯한 기분을 만끽한다. 휴 잭맨의 모습을 손바닥 안에서 감상하며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쇼케이스의 링크 주소를 직접 공유한다.

"휴 잭맨, 멋져요! 대박! 울버린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 김씨의 링크 포스팅을 본 페이스북 친구도 이에 댓글을 달고 링크를 클릭한다. 그렇게 퍼진 '더 울버린' 홍보 행사 생중계 조회 수는 나흘만에 11만9000건을 넘었다.

모바일이 영화를 알리는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과거의 영화 시사회가 볼거리 많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화하더니, 이제 쇼케이스를 생중계해 예비 관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기에 이른 것이다.

TV 광고나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SNS상의 예비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개봉작들은 유스트림과 같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쇼케이스 생중계를 필수 마케팅 툴로 선택하고 있다. 네이버는 물론 아프리카TV, 유튜브 등도 유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화 '애프터어스' 역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윌 스미스 내한 생중계 쇼케이스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다. 레드카펫 위에서 싸이의 말춤을 추고 한국 영화 팬과 한 명씩 악수하며 소통하는 스미스의 친근한 모습을 선보였다.

영상 재팅과 댓글을 매개로 한 관객과의 만남도 인기다. 지난 6월 영화 '감시자들'이 진행한 '네이버 라인 스타채팅'은 영화계가 시도하고 있는 쌍방향 라이브 소통의 가능성을 선보인 첫 번째 사례다.

주인공 정우성과 한효주는 라인 앱을 통해 미리 선발된 예비 관객과 채팅을 하기도 하고, 생중계 댓글 창으로 들어오는 네티즌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다.

네이버는 아예 신작 영화의 쇼케이스를 네티즌에게 선보이는 '네이버 영화 프리미어 케이스'를 개설했다. 1시간 동안 1만6000개의 댓글이 올라온 지난달 4일 영화 '설국열차' 쇼케이스(오른쪽)는 생중계 콘텐츠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려줬다.

최근 엠브레인코리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90%가 모바일로 영화 관련 정보를 얻으며, 극장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모바일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영화계의 라이브 마케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뉴스

성북구 전세가 비율 최고

● 서울 시내 아파트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성북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용산, 강남, 송파, 양천, 서초 등 소위 '부자 동네'는 전세가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60% 이상인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성북(53.18%)이었고 이어 관악(47.08%), 중구(46.0%), 서대문(45.9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민지기자

빨간색 독촉장 발송 금지

● 앞으로 채권추심업자의 빨간색 독촉장과 욕설·협박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카드사와 대부업체 등에 전달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융사와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때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하면 금감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김문희기자

8인치 태블릿 PC '갤럭시탭3' 출시 삼성전자가 203.1㎜(8인치) 화면을 장착한 태블릿 PC 갤럭시탭3를 국내시장에 2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두께 7.4㎜, 무게 314g으로 얇고 가벼운 데다 대두(화제) 넓이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더좋은 비즈스퀘어' 신논현점 오픈

신개념 비즈니스 커뮤니티 브랜드 '더좋은 비즈스퀘어'는 서울 역세권 최고 입지인 강남대로점, 선정릉점에 이어 신논현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더좋은 비즈스퀘어는 책상, 의자, 책장 등의 사무 집기,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팩스, 복사, 프린터, 스캐너, 8~10인이 이용 가능한 고급형 회의실까지 입주 즉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원스톱 스마트 솔루션 비즈니스 센터다.

더 좋은 인테리어와 최신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비즈니스 업무 공간뿐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 입구에 상주하는 매니저가 방문객을 맞아 주는 친절한 비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휴게, 상담 및 오픈 형태의 개인 업무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더좋은 카페'는 더 넓고 쾌적한 공간과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갖춘 고급 휴게 공간이다. /이성훈기자

'서울 홈&리빙페어' 곧 개막

MBC가 주최하고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4회 서울 홈 & 리빙페어 - 제2회 서울 관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제33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열리는 '서울 홈&리빙페어'는 가전,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인테리어 · 가정용품 등으로 이뤄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2)780-0366

로하스핏 전문강사 모집

로하스핏(LOHAS FIT)에서는 피지컬 요가와 테라피 필라테스 전문강사 과정을 모집한다. 교육은 청담 본점에서 진행되며 교육 기간은 3개월이다.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이수 후 재교육 일환으로 매월 정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512-7327

스프링데일 '타임쉐어권'

제주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가 세계 최고의 리조트 교환 회사 RCI와 가맹을 맺고 새롭게 '타임쉐어 회원권'을 출시했다. 타임쉐어 회원권에 가입한 회원은 골프 정회원 혜택은 물론 스프링데일 골프텔을 연간 21일 이용할 수 있고 RCI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골프 예약은 1개월 전에 그린피를 선입금해 회원이 요청한 시간대로 예약이 확정된다. 문의 (02)3785-1004

25일 '쇼호스트 배틀대회'

쇼호스트 양성 아카데미인 '이원석 쇼호스트 아카데미'가 오는 25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3 서울소싱페어'에서 '쇼호스트 배틀대회'를 개최한다. 50개 팀이 예선대회에 참여해 열띤 경연을 치렀으며 이 중 16개 팀이 선발돼 본선 경연을 치를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기부자판기 '힐링 칠드런'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상상엑스포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가 협찬하고, 글로벌 식음료 포장 시스템 제공 기업인 테트라팩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신개념 기부자판기 '힐링 칠드런(Heal'ing Children)'이 주인공이다.

LDT프로강사매뉴얼 출시

출판사 케이에스에스가 대학교수나 강사, 파원강사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LDT프로강사매뉴얼'을 내놨다. 프로강사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청년백수 탈출구 가을에도 열린다

중견·중소기업 70% "하반기 채용"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중견·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333개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5%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정'인 기업은 15.3%, '채용 계획 없다'는 13.2%였다.

채용 규모는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예정'이라는 대답이 81.6%를 차지했다.

채용 형태별로는 '신입·경력사원 모두 채용'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력만 채용'(20.2%), '신입만 채용'(17.2%) 순이었다.

채용 시기는 9월(46.3%)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9.5%), 8월(19%), 11월(7.4%)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 분야는 '영업·영업관리'(24.7%·복수 응답), '제조·생산'(24.2%), '연구·개발'(17.4%), 'IT·정보통신'(12.1%), '디자인'(11.6%), '서비스'(10.5%) 순이었다.

학력 조건은 '학력 무관'이 44.7%로 가장 많았고, '대졸'(27.9%), '초대졸'(26.3%), '대학원졸'(1.1%) 순이었다.

신입사원 초봉은 4년제 대졸자 기준 평균 2355만원(인센티브 제외 기본 상여 포함)으로 파악됐다.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기준으로는 '업무 전문성'(5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무 연관성'(24.4%), '실적'(15.6%), '근속연수'(4.6%), '전공'(4.2%) 등의 순이었다.

/메트로기자 kmlee@metroseoul.co.kr

팡팡-끌로에도 명품대전 톤다 22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그랜드오픈을 맞이해 '해외패션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팡팡, 끌로에, 부어 등 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뉴시스

아이폰5S 자신감…반값 5C와 동시 출시

다음달 20일 공식 판매될듯

애플의 아이폰 신모델이 등장 일 저가형을 데리고 다음달 20일 공식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 빈과일보는 애플이 아이폰5 후속 모델인 아이폰5S와 신흥시장을 겨냥한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5C를 이례적으로 동시 판매한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일본 미주 시장 등에서 우선 판매될 예정이며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선 이르면 연말께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아이폰5S가 기존 아이폰5와 비슷하고 아이폰5C는 아이폰5S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아이폰 마니아들을 궁금하게 했던 스펙 일부도 공개됐다. 아이폰 신제품 2종류의 몸체 부분을 자체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아이폰5S는 지문 인식, 근거리무선통신(NFC), 플래시 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5C는 정면 모양은 아이폰5와 같지만 몸체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흰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노란색 등으로 컬러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국원기자

야후, 구글 누르고 1위 탈환

야후가 구글을 제치고 2년 만에 미국 포털 사이트 방문자 수 1위에 올랐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야후는 순방문자 1억9656만4000명을 기록했다.

야후가 월간 순방문자 수 집계에서 1위를 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야후의 지난달 순방문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가량 증가했다. 반면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던 구글은 1억9225만1000명으로 2위로 밀려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은 각각 3위와 4위였다.

현지 언론은 구글의 주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침체기에 빠졌던 야후의 1위 등극은 CEO 머리사 메이어의 공헌이라고 공을 내놓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언니들의 '귀요미 게임'

여성 유저 많은 '카트라이더' 9년 롱런 이어 '드래곤프렌즈' 눈길

게임 계가 여심 잡기에 나섰다.

여성에게서 반응이 좋은 게임은 흥행한다는 업계 속설과 포화 상태인 남성 게임 시장 속에서 여성 취향 게임이 각광받는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은 철저하게 여성 이용자를 겨냥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게임(SNG) '드래곤프렌즈'를 22일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 공식 출시했다.

드래곤프렌즈는 인기 게임 '룰더스카이' 제작진들로 구성된 ㈜이노스파크의 개발작이자 한게임이 NHN과 분사 후 처음 내놓는 작품이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슬로건부터 '그녀의 감성 신세계 드래곤프렌즈'인 이 게임은 동화 개구리 왕자를 소재로 귀여운 공룡 캐릭터, 마법 아이템, 캐릭터 결혼·채팅 기능으로 게임에 서툰 여성 이용자라도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게 개발됐다.

최근 열린 출시 행사에서 이노스파크 신지전 공동대표는 "전작 룰더스카이가 국내 여성 이용자의 마음을 잡았다면 드래곤프렌즈는 대대적인 글로벌 진출을 통해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넥슨의 캐주얼 레이싱게임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도 여성 이용자의 뜨거운 성원 속에 이번달 출시 9주년을 맞았다.

카트라이더는 누적 접속자 1800만 명, 최고 동시 접속자 22만 명을 기록한 인기 게임으로 현재 전 세계 2억7000만 명의 회원이 즐기고 있다.

이 게임은 깜찍한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그래픽, 단순한 게임 방법으로 여성 이용자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았다.

다만 아직까지 게임 주 이용자는 남성이라 여성 위한 게임이 얼마나 흥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 유영욱 캠프장은 "우리의 경우 '드래곤프렌즈에 오면 그녀의 감성 신세계 속에서 당신의 여자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중대한 교훈이 있다"면서 "대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게임에는 남성도 많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휘기자 unique@metroseoul.co.kr

느낌걸 김지민 "진격삼국 뜰걸!"

하이원엔터의 신작 웹게임 전속모델 발탁 검객 변신

KBS2 개그콘서트에서 '느낌 아니까~'란 유행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녀 개그우먼 김지민이 게임 모델로 변신한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원ENT)는 김지민을 신작 웹게임 '진격삼국' 전속 모델로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진격삼국은 육성, 전략, 액션 요소를 모두 갖춘 완성형 웹게임이다.

이에 따라 광고 촬영은 유명 여배우로 살아가는 현실의 김지민이 과거 세계로 끌어져 그 시대의 검객 김지민을 만난다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김지민은 22일 시작되는 공개베타테스트(OBT)부터 진격삼국의 얼굴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하이원ENT 정용모 팀장은 "광고 촬영에서 김지민은 기존의 유쾌 발랄한 매력은 물론이고 신비스럽고 단아한 분위기와 고혹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도 한껏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lgh@

애니팡 '욱일승천기 닮은 점수판' 논란

"애니팡에 욱일승천기가 있다."

게임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욱일승천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사용한 대동아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베트남 등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22일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에 따르면 애니팡 점수를 알려주는 화면의 배경은 햇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디자인인데 욱일기와 비슷하다. 애니팡 시작 아이콘의 배경도 파란색과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설명이다.

네티즌들도 "광고나 포스터, 뮤직비디오에서 집중을 표현하는 디자인 방식이지만 국민 게임인 애니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욱일승천기와 애니팡 배경이 비슷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 관계자는 "게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디자인 요소로 다른 게임에서도 '바깥으로 퍼지는 무늬'를 많이 쓴다"며 "욱일승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국현기자

더 신난 온라인 야구게임 업데이트 붐

프로야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온라인 야구게임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벌인다.

넥슨은 '프로야구2K'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선수 정보 확인과 구단 관리, 라인업 구성 단계를 줄여 편의성을 강화했다.

넥슨은 다음달 22일까지 신규 구단을 생성하는 이용자 전원에게 원하는 '스타터 패키지'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2k.nexon.com)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엔트리브소프트도 'MVP 베이스볼 온라인' 업데이트를 한다.

가상의 팀과 경기를 치르는 'AL 토너먼트' 이용자가 감독이 되어 전략 대결을 펼치는 '감독 모드' 등이 업데이트를 통해 소개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mvpbo.gametre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윤희기자

디아블로3 확장팩 공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를 공개했다.

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1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게임스컴에서 디아블로3의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팩은 디아블로2에 등장했던 타락한 지혜의 대천사 말티엘의 뒤를 추격하는 줄거리로 구성됐다. 체력이 좋고 근거리 전투에 능한 성전사 캐릭터도 새롭게 등장한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확장팩은 새로운 캐릭터와 아이템, 엔딩을 추가해 디아블로3 진화 과정에 큰 이정표를 제시한다"면서 "하루빨리 이 확장팩을 선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추석선물 실속 있어야 '긁는다'

항목별 저렴한 곳 구매경향
선물-온라인몰 · 제수-시장
홈플러스 예약판매 1순위는
1만원대 커피믹스세트 차지

실속이 올 추석 선물의 키워드로 통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합리적인 수준의 실용적인 제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션이 최근(14~20일) 자사 회원 1727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선물은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과반수가 넘는 54%가 온라인몰을 꼽았고 대형마트(27%)가 뒤를 이었다. 차례상 준비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몰(31%), 대형마트(22%) 순이었다.

이마트가 올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실속 저가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특히 한우세트 가격이 올들어 소폭 내린 데다 지난해에 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물량을 10% 많이 준비했다. 과일 선물세트 가격도 10% 이상 저렴하게 내놓을 방침이다.

◆사전예약행사 최대 50% 저렴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예약 판매 행사에 재빨리 시동을 걸었다.

신세계백화점은 9월 4일까지 예약 판매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화점 측은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져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휴가객들이 크게 늘어나 미리 선물을 사려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제품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9월 1일까지 정육·청과·생선·건강식품 등 주요 선물세트 100여 종목을 5~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늘렸다.

이마트는 9월 4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113종에 대해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 미리 구매 시 최대 3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롯데마트도 다음달 4일까지 한우와 굴비 등 신선식품 15종, 햄과 포도씨유 등 가공식품 29종, 샴푸를 비롯한 생활용품 14종 등 모두 66종에 대한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홈플러스 또한 같은 기간 한우·더덕·과일 등 신선식품 31종, 햄·통조림 등 가공식품 52종, 홍삼·흑마늘 진액·오메가3 등 건강식품을 포함한 총 96종에 대해 사전 구매 행사를 연다. 사전 예약품목은 20~50% 할인가가 적용된다.

한편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세트는 1만원대 커피믹스 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5~13일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순위를 집계한 결과, 동서식품의 맥심커피세트 84호 (1만9800원) 매출 비중이 전체의 46.5%에 달했다. 예약 판매 2위는 대상 청정원팜고급유 2호 (14.5%)였다.

/정효순기자 hyeon@metroseoul.co.kr

저가형 선물세트 편의점에 넘치네

편의점들이 추석 선물 세트 시장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편의점에서 추석 선물을 사는 이들이 매년 늘자 올해도 저가형 상품을 위주로 다양한 구색을 선보였다.

CU는 3만원대 이하의 저가형 선물세트를 110종 마련했다. 전체 선물세트 268종 중 40%나 차지하는 규모다. 주로 참치·식용유·커피·차·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제품들이다.

GS25는 전체 추석 선물세트 491종 중 72%(354종)를 먹을거리로 준비했다. 건강 선물도 늘려 비타민 23종을 1만8000원부터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 가격을 대형마트보다 10%가량 낮춘 '알뜰 포장 상품'을 내놨다. 독일의 1리실 세제세트, 다우니 세트, 바디피트 생리대 등 5종으로 택배 전용(택송비 무료)으로 판매한다.

/정효순기자

서울팔래스호텔 '하우스웨딩페어' 손짓

29일 1층·12층서 열려

서울팔래스호텔이 29일 '2013 하우스웨딩페어'를 개최한다.

서울팔래스호텔의 1층 로얄볼룸과 12층 스카이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웨딩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특히 서울팔래스호텔만의 차별화된 웨딩 데커레이션을 경험하고, 특별한 퓨전한식 코스 요리를 스파클링 막걸리와 함께 시식해볼 수 있다.

2부 행사에서는 성악 듀엣 등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명품 인생 만들기' 강의로 잘 알려진 송진구 교수의 '명품 가정 만들기 클래스'도 진행된다.

성자영 서울팔래스호텔 연회판촉팀장은 "각기 다른 감성과 특색이 있는 웨딩홀 데커레이션과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멋진 하우스 웨딩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오후 12시부터는 웨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는 예비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6-6869·6870

/정효순기자

그랜드힐튼 '도심 힐링휴가'

'홀리데이…' 혜택 푸짐

그랜드 힐튼 호텔이 도심 속 휴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패키지를 선보인다.

그랜드 힐튼 호텔은 다음달 5일까지 '홀리데이 인 더 시티 패키지' 예약 고객에 한해 추가 객실 사용 시 50%를 할인해준다. 홀리데이 인 더 패키지는 총 세 가지 타입으로 18만2000~35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에 수박과 조식 및 기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형 레지던스 그랜드 스위트에서 3인 이상의 가족이 묵을 수 있는 '패밀리 바캉스 패키지'도 내놨다. 가격은 20만5000~25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문의 02)2287-8400

/박지원기자

오렌지·레몬…달콤한 향에 취한 보드카

전세계서 사랑받는 스웨덴 보드카 '스베드카'
씨트론·클레멘타인 등 패키지 리뉴얼 더 상큼

롯데주류가 수입·판매하는 스웨덴산 프리미엄 보드카 '스베드카'의 일부 제품의 패키지가 새롭게 바뀐다.

스베드카는 최근 보드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롯데주류가 수입하게 된 보드카로 다른 제품에 비해 1.5배가량 많은 5회 증류해 잡미와 잔향을 더욱 줄이고, 과일 향의 함량도 다른 제품보다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패키지가 변경된 제품은 레몬 향이 첨가된 '스베드카 씨트론'과 오렌지 향이 첨가된 '스베드카 클레멘타인' 등 2종이며, 패키지 전면에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강조해 제품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롯데주류는 소비자들이 스베드카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기고 취향에 따라 얼음 및 토닉워터와 같은 탄산수 등과 섞어 마시기 편하게 알코올 도수를 37.5도에서 35도로 2.5도 낮추고 달콤한 맛을 강화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스베드카의 9가지 제품군 중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류는 이번에 리뉴얼한 과일 향이 첨가된 2종과 오리지널 보드카 1종"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스베드카의 품목 증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베드카는 "보드카 카테고리에 즐거움을 불어넣자"라는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1998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칩시크(Cheap-Chic: 저렴하지만 세련되고 고품질에 초점을 둔)' 포지셔닝을 도입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스베드카는 국제주류품평회(IWSC) 금메달(2002년·2009년·2010년)수상,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SWSC) 금메달(2005년·2008년·2011년) 수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8년 연속 임팩트지가 선정한 '가장 핫한 브랜드상'을 수상한 가장 성장률에서 앞서는 프리미엄급 보드카 브랜드로 국내에는 지난 4월에 출시돼 100일간 약 1만여 병이 팔렸다. 문의: liquor.lottechilsung.co.kr

/박지원기자

래프팅·해외여행…도전! 공짜휴가

아웃도어 테바-카프리 맥주 2색 휴가지원 이벤트 진행

쌓이지는 업무 때문에, 가혹은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휴가를 미룬 이들을 위해 유통업계가 다양한 휴가 지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슈즈 멀티숍 슈마커의 독점 아웃도어 브랜드 테바는 25일까지 짜릿한 래프팅을 즐길 '테바 원정대'를 모집한다.

슈마커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hoemarker)에서 이웃을 맺은 뒤 참가를 원하는 날짜에 댓글을 등록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래프팅 이용권과 테바 아쿠아 슈즈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캠핑을 위한 침낭, 메시 백, 티셔츠 등을 함께 전달한다.

OB맥주 브랜드 카프리는 '카프리 셀러브레이션 페이스북' 오픈을 기념해 31일까지 병맥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프리 병맥주에 달려있는 응모권 태그 속 스크래치를 긁어 응모번호를 확인한 뒤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접속, 응모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국내외 유명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내달 9일 페이스북과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음파진동운동기 '내추럴 웨이브' 국가대표 위해 태릉선수촌 기증

태연메디칼 최길운 대표

(주)태연메디칼은 자사의 음파진동운동기 '내추럴 웨이브(Natural WAVE)'를 태릉선수촌에 기증하는 전달식을 2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간공학·인체역학·운동생리학을 기초로 개발된 내추럴 웨이브 음파진동운동기는 인체 세포를 활성화시켜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사용하면 훈련의 효과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혈액순환 개선, 복부지방 개선,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효과도 있다.

최길운(사진 왼쪽) (주)태연메디칼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태연메디칼은 1995년 설립 이후 척추 및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품 국산화에 앞장선 업체로, 현재 재활 및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내추럴 웨이브를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송재희기자

스타들이 찾는 'S라인 척추' 건강 주치의

강남초이스병원 전문치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만성 목 통증 및 어깨 통증·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틀어짐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침 치료, 교정 치료, 약물 치료, 신경성형술 등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켜주는 치료에 의존할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단순한 통증이 허리 및 목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는 경우 척추 관절 병원 등 전문적인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강남 초이스 병원도 그중 하나다.

강남 초이스 병원은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 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이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척추 전문의·도수치료사·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를 전담해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1대 4 맞춤형 치료,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며 잘못 자리 잡은 척추 관절과 뼈를 바로잡는다.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킨다.

현재 강남 초이스 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과 홍대역에 위치해 있다. 문의: (02)875-2200 /송재희기자

뼈 마디마디 '폭포수 마사지' 한 기분

레노바티오 '수 파동 테라피' 소자본 창업 숍앤숍 모집중

폭포수 아래서 물줄기를 맞고 몸이 좋아졌다는 사례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신체에 물줄기가 닿으면 묵직하면서 섬세한 느낌이 교차하는 동시에 압력과 파동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을 구체화시킨 제품이 바로 '수 파동 테라피'다.

수 파동 테라피는 건강 전문 기업 레노바티오와 (사)대한수파동회 과학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기기로, 수압이 피부 아래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뼈 마디마디를 마사지하게 되고 장기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 뭉친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키고 늘어진 살의 탄력과 생기를 촉진시키는 한편 힙업, 옆구리 라인 축소, 복부 라인 축소 등의 효과도 가져 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레노바티오 관계자는 "현재 제품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소자본 창업 및 숍앤숍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032)832-5410

/송재희기자

‘설국열차’ 너무 빨리 달렸나

하루 관객 6만명대로 ‘뚝’…누적 841만명 넘어서
1000만명 돌파 만만찮아…‘나우 유 씨 미’ 1위 질주

영화 ‘설국열차’의 1000만 고지 등극 가능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22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예매율 집계에서 ‘설국열차’는 9.8%로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31.0%)과 ‘숨바꼭질’(27.5%), ‘감기’(9.8%)에 이어 4위(9.1%)에 머물렀다.

상영 4주째가 되면서 일일 관객수는 6만 명대로 떨어졌다. 2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6만8806명을 불러모으는 데 그쳤다. 앞서는 19일 8만6746명에서 20일 7만775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날까지의 누적 관객 수는 841만5338명이다. 1000만까지 가려면 일일 관객수 유지와 더불어 주말 장사가 필수인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주말(16~18일) 관객 수는 65만5564명으로, 전주에 비해 반토막 이상이 났다. 이번 주말은 새로 개봉되는 ‘나우 유 씨 미’의 선전이 예상되고 ‘숨바꼭질’의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다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투자·배급사인 CJ E&M(이하 CJ)의 의지다.

예년 같으면 다음달 추석까지 스크린 수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1000만 고지를 밟으려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다소 달라진 점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그룹 사정이 좋지 않은 CJ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관련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CJ 측은 22일 “1000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내부 전망”이라면서 “다음달 5일부터 ‘스파이’를 배급하는 데다, 이제는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개봉 전략 수립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 정도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스코어”라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또디 by 정연식 <723>신이야

‘웨이크보드 패션 종결자’ 세사기 글래머 배우 다은이 경추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육감적인 비키니 의상으로 웨이크보드에 도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여성 댄스 그룹 LPG 활동과 미인대회 입상 등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28일 개봉될 이 영화에서 개방적인 성격의 미혼여성 유리 역을 맡아 빼어난 몸매를 과시한다.

▶ 대부분의 체험스포츠 남성 강사들이 가장 원하는 제임 세포. /조성준기자

하정우 연출 ‘롤러코스터’ 10월 7일 개봉

하정우(사진 왼쪽)의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가 10월 7일 개봉된다.

이 영화는 오만한 성격의 한류스타 ‘마준규’(정경호)가 태풍에 휘말린 비행기 안에서 겪는 소동을 그린 코미디다. 정경호(오른쪽)와 나란히 김성균, 김병옥, 김재화 등이 출연했다.

한편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은 23일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집을 공개하고, 아들처럼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선보인다.

정기시험과 **100%** 동일한
퀄리티와 난이도~
ETS TOEIC 공식수험서
시리즈

▶ 입문서 ▶ 종합서

▶ 파트별 실전서 ▶ 종합 실전서

▶ 토익스피킹 종합서 ▶ 토익 필수어휘

'기타홀릭' 소년 국가대표 DJ 되다

일렉트로 듀오 빅 배드 노즈 멤버

한석현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DJ 음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 팀이 있다. 한석현(활동명 한·28)과 정인교(활동명 민교·26)가 결성한 일렉트로 듀오 빅 배드 노즈가 그 주인공이다. 메트로신문과 만난 한석현은 탄탄한 이론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K-디제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UMF 코리아 등 대형축제 서막 열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는 이른바 DJ 음악이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인 댄스 뮤직 매거진 DJ매과 포브스 등은 매년 세계 톱 DJ의 랭킹을 발표하며, 이들은 세계적인 팝가수들을 능가하는 한 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시장은 국내에는 서울 강남의 클럽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2~3년 사이 K-팝 열풍을 타고 K-디제잉은 전 세계인이 눈여겨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작돼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다.

올해 열린 2013 UMF 코리아에는 세계 랭킹 1위 아민 반 뷰렌과 3위 아비치, 9위 아프로잭 등 세계적인 DJ들이 총출동해 10만 관객을 열광시켰다. 이 같은 록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일찍이 뮤지션의 길을 선택했다. 고교 졸업 후 일본 유명 음악학교인 도쿄 뮤직 아트 쇼비에서 실용음악과 프로듀싱을 전공했다.

학업을 병행하며 일본인 멤버들로 구성된 일렉트로 록 밴드 블랙 마켓 챔스를 결성해 4년간 일본 인디 시장에서 공연과 음반 활동을 이어갔다. 2011년 귀국 후 캐나다에서 음악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고교 친구 정인교를 만나 지금의 팀을 결성했다.

"록을 기반으로 하는 밴드 활동을 줄곧 해왔지만 늘 실험적인 음악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전문 디제잉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호기심과 자신감이 컸죠. 특히 국내 디제잉 음악은 해외에 비해 프로듀싱과 연주 부분이 취약한데 차별화를 이루고 싶었어요."

기타, 키보드 등 악기와 보컬을 활용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볼거리를 제공하

빅 배드 노즈가 7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UMF 코리아에서 공연하고 있다.

촌티 안나고 강렬한 우리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프로듀싱·연주에 방점… K-디제잉 수준 끌어올릴것

대형 축제의 서막을 연 팀은 한국의 빅 배드 노즈다. 이들은 S.E.S 출신 가수 바다와 함께 주제가 '홀드 온 미' 무대를 선사하는 등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빅 배드 노즈는 UMF 코리아에 앞서 3월 개최된 2013 UMF 마이애미에 구준엽과 함께 유일한 한국 대표 DJ로 참가하며 이름값을 높였다.

한석현은 "지금까지 서봤던 무대 중 최고였다"며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했다. "무대에 선 것만으로 힘이 넘쳤어요. 모든 관객이 외국인이었고, 세계 최고의 DJ들만이 서는 무대에서 그들과 호흡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얻었죠."

#체계적 음악교육… 한국의 데이비드 게타 꿈

대형 무대를 차례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14세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한석현은 중·고교시절

는 동시에 멜로디 높은 음악을 들려주는 데 주력했다. 노력은 빠르게 결과로 이어졌다. 신사동의 작은 클럽에 머물던 무대는 "2012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2012 월드 일렉트로닉 카니발", "2012 로드 투 울트라" 등 초대형 무대로 빠르게 확장됐다.

"더 큰 무대에 설수록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마니아와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죠. 촌스럽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강렬한 우리의 음악으로요."

그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데이비드 게타가 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게타는 DJ 음악을 세계화한 주인공이죠. 저도 전자음악이든 록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든 나만의 음악을 직접 연주하며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사하는 DJ가 되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더원커뮤니케이션 디자인/[illegible]

star bag

日음악축제 '에이네이션' 참가

걸그룹 2NE1이 24일 일본 음악축제 '에이네이션'의 오사카 공연에 참가한다.

신곡 '두 유 러브 미'를 21일 일본에서 선보인 이들은 공연에 이어 10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팬클럽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편 팀의 막내 공민지(왼쪽에서 세 번째)는 최근 올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 브랜드 얼큰 새 모델

소녀시대 티파니가 화장품 브랜드 얼큰의 모델로 나선다. 업계 측은 22일 "티파니의 도자기 같은 피부와 세련된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며 "광고 촬영에서도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물론 도시적인 매력까지 뽐냈다"고 전했다.

이달말 귀국… "차기작 검토"

연기자 신세경이 이달 말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다.

신세경 측은 "현재 유럽을 여행 중인 신세경과 가족이 이달 말쯤 귀국할 예정"이라며 "귀국 후 본격적으로 차기작을 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경은 6월 막 내린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여주인공 서미도를 연기했다.

'24시간이 모자라' 뮤비 인기

원더걸스 전 멤버 선미의 솔로 데뷔곡 '24시간이 모자라'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일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22일 음원 사이트 멜론과 올레뮤직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선미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과감한 의상으로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과시했다.

신승훈 음악실험 완결판

11월 100명 출연하는 대형 콘서트 개최 … 앞서 4년만에 새 앨범 내놔

발라드 '황제' 신승훈이 베테랑 가수들의 컴백 유행에 정점을 찍는다.

신승훈은 9~10월께 4년 만에 새 앨범을 출시하고 음악적 실험을 총집결한 대형 콘서트를 11월 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170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했고 2004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콘서트 '더 신승훈 쇼'로 매년 전국과 해외를 찾은 데 이어, 올해는 모든 역량과 물량을 쏟아부은 단 한 회의 콘서트로 관객과 만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신승훈 밴드까지 이번 무대에 오를 출연진만 100여 명에 이른다.

소속사는 "매 공연마다 다양한 주제로 전곡을 편곡하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어쿠스틱 무대, DJ와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연출을 꾀했다. 이번 공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전 제작 기간만 7개월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연에 앞서 새 앨범을 발표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3연작 미니앨범 시리즈인 '쓰리 웨이브스 오브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의 완결판이나 음악적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구상한 프로젝트로 2008년 첫 앨범 '라디오 웨이브', 2009년 두 번째 앨범 '러브 어클락'에 이은 마지막 앨범이다.

올해는 '가왕' 조용필이 1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보컬의 신' 이승철이 4년 만에 정규앨범을 출시하는 등 어느 해보다 중견 가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기에 신승훈의 컴백을 시작으로 올가을에는 윤상, 이승환, 이적, 토이 등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들이 대거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 음악 시장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석호필 "난 동성애자다"

인기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로 잘 알려진 '석호필' 웬트워스 밀러(사진)가 마침내 커밍아웃했다.

22일 이(E!) 온라인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밀러는 러시아에서 열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의 초청을 최근 거절하며 "나는 동성애자(gay)로서 초청을 거절해야만 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 상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삶과 사랑에 있어 나 같은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나라의 행사에 기분 좋게 참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5년간 방송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마이클 스코필드 역을 열연한 밀러는 극중 성(姓)인 스코필드를 우리말로 발음한 애칭 석호필로 불릴 만큼 국내 팬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프린스턴대 영문과 출신으로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의 시나리오를 써 더욱 친숙해진 그는 드라마 방영 당시부터 게이란 소문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성 정체성을 밝힌 적이 없다.

/조성준기자 when@

유이 '황금무지개' 출연 검토

애프터스쿨 유이(사진)가 다시 한번 주말극의 여주인공으로 나설 전망이다.

22일 소속사에 따르면 유이는 11월 방영될 MBC 주말극 '황금 무지개'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해 초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KBS2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에서 첫 주연을 맡아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이 드라마는 일곱 명의 고아들이 친남매 같은 정으로 뭉쳐 살며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유이는 맏언니 백원 역을 제의받았다.

백원의 아역으로는 MBC '해를 품은 달' '메이퀸'의 김유정이 나선다. 양아버지 한주 역은 김상중이 맡았다. /박준원기자

장동민·유상무 노비체험

개그맨 장동민·유상무·조세호와 '푸른 거탑'의 최종훈, 격투기 선수 양재현이 24일과 31일 방송될 케이블 채널 tvN의 파일럿 프로그램 '시간탐험대 렛츠고'에서 조선시대 노비 생활을 체험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주제로, 출연진은 24시간 동안 소의 배설물을 치우고 지게로 짐을 나르는 등 노비의 삶을 재현한다.

제작진은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웃음을 함께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중장년팬 늘었어요"

아침극 '은희' 새내기 배우 김민경

KBS2 아침극 'TV소설 은희'에 출연 중인 김민경(24)은 초롱초롱한 눈빛이 참 인상적인 새내기다. 올 상반기 KBS2 '학교 2013'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의 조연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지난달 선보인 SNS 드라마 '아직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와 이번 작품까지 쉬지 않고 출연하며 영리하게 자신의 연기를 넓히고 있다.

#봉제공장 노동자 미경 역 마음 짠해

6·25 직전이 배경인 '은희'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며 동생들을 책임지는 미경 역을 열연 중이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중에 은희(경수진)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인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캐릭터다.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알아보는 일이 늘었다.

"그 옛날 생계를 위해 봉제공장에서 설움을 참으며 힘들게 20시간 이상씩 일했던 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짠해지죠. 비록 비슷한 경험은 없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해주는 옛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자라서 상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나 역시 남동생과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미경의 마음에 공감된답니다."

#독립영화가 연기 밑거름… 이제훈과 절친

절절한 연기파 배우들을 우수히 배출해 배우사관학교로 불리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 출신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로에서 한예종 출신들이 하는 연극을 보고 갑자기 진로를 연기자로 바꿨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다양한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다져왔다.

상업작 데뷔는 2010년 개봉된 공포영화 '귀'다. 당시 무명이었던 이제훈·이종석 등과 함께한 이 작품에서 소녀 귀신 역할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제훈과는 한예종 선후배 사이인 데다 독립영화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친하다. "독립영화를 찍은 경험이 밑거름이 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박연원기자 bell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카운드카이어블) 디자인/today

오오오오~ '차트퀸' 씨스타 4인4색 매력

10월 두번째 단독공연 ·· 최강 걸그룹 위상 다지기

씨스타가 공연으로 최강 걸그룹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진다.

씨스타는 10월 12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S'를 개최한다.

2010년 6월 '푸시 푸시'로 데뷔한 이들은 '니까짓게' '소쿨' '나혼자' '러빙 유'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6월 발표한 정규 2집 '기브 잇 투 미'로는 수록곡 전곡을 차트 상위권에 올려놓는가 하면 타이틀곡으로 모든 음원차트와 음악 순위 프로그램 정상을 휩쓸었다. '차트퀸'이란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함께 얻었다.

광고·방송계에서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라이브 공연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소속사는 "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시장에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오며 정상에 올랐다"며 "파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걸그룹 홍수 속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공연에서 4인 4색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씨스타는 데뷔 2년 만인 지난해 9월 같은 장소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3000여 팬을 사로잡았다. 네 멤버가 꾸민 섹시한 퍼포먼스를 비롯해 깜찍하고 건강한 매력, 폭발적인 가창력 등으로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채로운 재능을 무대에 펼쳐 보였다.

특히 소녀시대·카라·원더걸스 등 일부 여성 아이돌 그룹만이 단독 콘서트와 해외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씨스타는 두 번째 라이브 공연을 통해 톱 클래스 걸그룹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토르코시리즈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1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샤이니 또 '오리콘 징크스'

새 싱글 하루 3만 7000장 판매 불구 '아쉬운 2위'

샤이니가 또 한 번 오리콘 징크스로 아쉬움을 삼켰다.

21일 일본에서 발표한 여덟 번째 싱글 '보이즈 미트 유'는 하루 동안 3만7674장이 팔려나갔지만 오리콘 싱글 일간차트 2위에 머물렀다. 대진운이 좋을 경우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기록이지만 이번에도 상대를 잘못 만났다.

1위는 같은 날 새 싱글을 발표한 일본 최고 인기 걸그룹 AKB48이 차지했다. AKB48은 하루 동안 무려 109만5894장을 팔아치웠다.

샤이니는 매번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함에도 일본 최고의 가수들과 맞붙어 오리콘 정상의 문턱에서 고개를 떨궈야 했다. 2011년 6월 데뷔 싱글 '리플레이'가 2위, 8월 발표한 '줄리엣'이 3위, 10월 발표한 '루시퍼'가 2위를 차지하며 오리콘 싱글 순위를 장식한 샤이니는 당시 해외 가수가 최초로 데뷔 후 3연속 톱 3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싱글도 올해 3월 출시한 '파이어'(5위)를 제외하고 '셜록'(2위) '드림 걸'(2위) 등 모두 톱 3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FT아일랜드 스페셜 음반

남성 아이돌 록밴드 FT아일랜드가 데뷔 6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음반을 선보인다.

22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자작곡으로 채운 스페셜 음반을 다음달 23일 발표한다.

음반 출시와 함께 단독 콘서트 'FTHX'도 개최한다. 같은 달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무대를 마련한다. 1년 만의 국내 공연이다.

2007년 '치어풀 센서빌리티'로 데뷔해 '사랑앓이' '바래' '헬로 헬로' 등으로 사랑받은 FT아일랜드는 "6년간 함께 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창작음악극 '웰컴 투 중뱅이골' 공연모습

풍물 달인들의 열전 '지화자!'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 임실 '제 18회 필봉마을굿축제'

한여름 무더위가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23~25일 3일간 전북 임실에서 우리 고유의 무형 문화유산 축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바로 풍물굿 퍼레이드, 제18회 필봉마을굿축제다.

붓을 닮은 필봉산 아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필봉마을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풍물굿인 필봉농악의 발상지다. 1996년 시작된 필봉마을굿축제는 이제 전국 5대 농악과 중요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수백년 이어온 5대 농악 한자리

올해 축제는 어느 때보다 푸짐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우선 축제에서는 필봉마을에서 300여 년 전부터 내려온 호남 좌도농악의 전통 마을굿인 필봉농악과 평택농악, 진주 삼천포농악 등 전국 5대 농악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들의 릴레이콘서트가 이어진다.

또 창작 국악 공연 중심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 그리고 "필봉농악 동호회 초청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들이 축제를 축하한다.

이와 함께 무형 문화유산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는 '풍물굿 학술세미나', 지역 고유의 문화적, 예술적 정서와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임실 갤러리', 필봉문화촌만의 느낌과 감성을 담은 '전통문화 체험 얼쑤덜 마당' 등도 준비된다.

◆숨은 고수들의 신명나는 경연

이번 필봉마을굿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전과 달리 전국의 많은 풍물애호가들을 위한 마당이 마련 된 것이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 전통연희문화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이 마당은 무형문화재 및 전통 연희 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에 숨어있던 고수들의 신명나는 무대를 엿볼 수 있는 경연대회는 '전국대학생 양순용배 풍물굿 경연대회', '생활 문화 동호인 경연대회', '개인놀이 경연대회'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웰컴 투 중뱅이골Ⅱ' 상설 공연

필봉마을굿축제는 3일간의 잔치로 끝나지만 필봉마을에서의 잔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 마련이라는 축제의 목적에 맞춰 축제를 주관한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창작음악극 '웰컴 투 중뱅이골'에 이어 '웰컴 투 중뱅이골 Ⅱ-필봉아리랑'을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연은 다음달 28일까지 토요일 오후 8시 필봉마을 한옥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뿐만 아니라 한옥에서 머무는 1박2일 풍물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날짜: 8월 23~25일(금~일)
-장소: 전북 임실 필봉마을 필봉문화촌
-문의: 임실필봉농악보존회 063-643-1902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구담의 전설·신선 노닐던 사선대…신비로운 임실

임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치즈의 자부심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지만 꼭 들려야 하는 명소들도 여럿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그래도 임실에 왔으니 우선은 치즈 맛을 봐야 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홍보관, 유가공 공장, 특산물 판매장, 치즈과학 연구소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지난 1958년에 산양 두 마리로 시작된 임실 치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드넓은 초지와 유럽풍의 경관 속에서 진행되는 치즈 만들기 체험(사진) 프로그램은 어린이는 물론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섬진강을 담아낸 구담마을

산과 강의 풍광이 그림같은 구담마을은 '전설의 마을'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섬진강에 자라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거북구자 구담'이라고 불렸다는 설과 강줄기 군데군데 큰 소가 아홉 개 있다고 해 '구담'이라고 불렸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어둠도 잊게 하는 월파정

1927년 덕치면 물우리에 서주하던 밀양 박씨 밀성부원군파의 후손들이 주축이 돼 선조들의 유덕을 경모하기 위해 건립한 별장. 조선식 건축 양식으로 정교한 조각과 우아한 선, 화려한 단청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선경을 빚어놓고 있다.

◆신선과 선녀의 놀이터, 사선대

사선대는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 하늘에서 신선과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최근에는 수준 높은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는 사선대 조각공원이 볼거리를 더한다. 또 사선대를 둘러싼 산자락에서 운서정까지 이르는 길은 산책 코스로도 그만이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2013 의정부예술의전당
썸머콘서트

◆의정부 썸머콘서트
날짜: 8월 24~25일
장소: 경기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여름의 늦더위를 즐겁게 물리칠 수 있는 '의정부 썸머콘서트' 행사는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날인 24일에는 재즈 보컬리스트인 임희숙씨와 재즈 뮤지션인 김가성씨 등이 출연하는 '재즈콘서트'가, 25일에는 송창식씨와 기타리스트 함춘호씨 등이 출연하는 '한여름 밤의 낭만 포크콘서트'가 각각 열린다.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날짜: 8월 30일~9월 1일
장소: 충남 청양군 청양시장 일원

축제는 충남웰빙프스에서 열리는 힐링 체험'이라는 주제에 맞게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체험형 축제'로 마련된다. "고추 장인을 찾아라", "구기자주 마시고 고추 빨리 먹기", "청양매운 음식관" 등 11개 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골프, 테니스, 게이트볼 등 각종 체육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명품 치악산 복숭아축제
날짜: 8월 24일
장소: 강원도 원주시 젊음의 광장

축제에는 25개 복숭아 작목반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비롯해 전시회, 직판행사 등이 준비됐으며 '복숭아 높이 쌓기'와 '껍질 깎기', '복숭아 골든벨', 복숭아 낚시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24일 충북 충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리는 제14회 복숭아 축제도 복숭아 가공식품 1일 장터 등이 마련돼 기대할 만하다.

최정·박병호 24호포 펑!펑!

SK·넥센 승리 합창…LG 46일만에 3연패

최정(SK)과 박병호(넥센)의 홈런왕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정과 박병호는 22일 인천 문학구장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경기에서 나란히 시즌 24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먼저 최정이 LG와 1-1로 맞선 3회말 결승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SK는 홈런 세 방을 앞세워 LG를 6-1로 격파, 5위 롯데에 2.5경기 차로 뒤쫓으며 가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LG는 장타력 부족을 절감하며 2연패, 선두 복귀에서 발걸음을 멀어졌다.

LG가 연패를 당한 것은 지난달 5~7일 3연패에 빠진 이후 무려 46일 만이다.

곧이어 넥센도 목동에서 2-1로 아슬아슬하게 앞선 6회말 박병호가 솔로포를 터뜨린 데 힘입어 NC를 6-1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넥센 선발로 등판한 오재영은 5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쳐 2006년 4월 18일 잠실 두산전 이후 무려 2683일 만에 선발승을 거두는 감격을 누렸다.

프로야구 전적 22일

■ 목동

	1-3	4-6	7-9	R
NC	100	000	000	1
넥센	200	001	21X	6

[illegible]

■ 문학

	1-3	4-6	7-9	R
LG	010	000	000	1
SK	012	000	12X	6

[illegible]

■ 대전

	1-3	4-6	7-9	R
KIA	000	001	002	3
한화	111	010	00X	4

[illegible]

■ 대구

	1-3	4-6	7-9	R
두산	010	000	001	2
삼성	001	100	20X	4

[illegible]

대전구장에서는 한화가 타선의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KIA를 4-3으로 격파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대구구장에서는 삼성이 홈런 3방을 앞세워 두산을 4-2로 꺾고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솔로 홈런을 날린 추신수(오른쪽)가 마크 베리 코치의 축하를 받으며 3루를 돌고 있다. /AP 뉴시스

<통산 홈런 100개·도루 100개 기록한 선수>

추 '100-100클럽' 눈앞에

추신수 애리조나전 시즌 16호포 쾅!…4안타 3타점 맹활약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올 시즌 16호 홈런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통산 100호 홈런에 한 개차로 다가섰다.

추신수는 22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 1회말 첫 타석에서의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활약으로 타율도 0.275에서 0.281로 껑충 뛰어올랐다.

팀은 10-7 승리를 거뒀다.

추신수는 시애틀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2006년에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을 때렸다. 2008년 14개 홈런을 날리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속으로 20개 홈런과 20 도루를 기록했다.

8개 홈런과 12개 도루로 다소 부진했던 2011년을 거쳐 지난해에는 16개 홈런과 21개 도루로 부활을 알렸다. 올 시즌에는 지금까지 16개 홈런과 14개 도루로 세 번째 20-20 클럽 가입이 가능해졌다.

통산 도루 역시 99개로 통산 100 홈런 100개 도루 기록 달성도 함께 노리게 됐다.

한편 시애틀 시절 추신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40·뉴욕 양키스)는 같은 날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미·일 리그 통산 4000개 안타의 대기록을 세웠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최우수선수로 뽑힌 이종현 /뉴시스

진격의 고려대 '우승 덩크'

상무도 꺾어…이종현 MVP

진격의 고려대가 '진짜 사나이' 상무까지 누르며 농구 프로-아마 최강전 정상에 올랐다.

고려대는 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전에서 나란히 21점씩 모두 42점을 합작한 슈터 김지후와 이종현의 맹활약에 힘입어 상무를 75-67로 제압했다. 미래의 특급 센터 이종현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상무는 높이에서 뒤져 아쉬움을 삼켰다.

고양 오리온스와 부산 KT에 이어 전날 준결승에서 프로 최강 울산 모비스까지 꺾은 고려대는 기동력을 앞세운 상무와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종료 36초 전 문성곤과 이승현의 자유투로 73-67 승기를 잡았다. /조성준기자

네이마르 바르샤 이적 첫골 브라질 신성 네이마르 다 실바 산토스 주니오르가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마침내 데뷔골을 터뜨렸다.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비센테 칼데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스페인 슈퍼컵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교체 투입된 지 7분만인 후반 21분 헤딩 동점골을 넣으며 팀의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한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이날 허벅지 통증으로 전반전만 끝내고 교체돼 팬들의 근심을 샀다. /AP 뉴시스

샤라포바 US오픈 포기

러시아 미녀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어깨 부상을 이유로 US오픈 기권을 선언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은 개막 나흘 전인 22일 "샤라포바가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새로운 사탕 회사 명칭인 '슈가포바'로 개명하려다 계획을 철회한 그는 6월 윔블던 2회전과 지난주 출전한 웨스턴&서던 오픈 2회전 탈락에 이어 이번 대회 기권까지 자존심을 계속 구기고 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ere were you going when I saw you at the mall? 과거에 했던 일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쇼핑몰에서 제가 당신을 봤을 때 어디에 가던 중이었어요?
어제 오후 4시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전화했을 때 숙제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ere were you going when I saw you at the mall?
What were you doing at about 4 o'clock yesterday afternoon?
Were you doing your homework when I called you yesterday?
When you called me, I was eating dinner.
They called us just as we were having dinner.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괄호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무엇을 were you doing at about 4 p.m. yesterday?
B: I was watching TV then.

정답 Wha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en you [called / visited] me yesterday, I was eating dinner.
2. They [called / visited] us just as we were having dinne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셀 수 있는 명사

▶ 셀 수 있는 명사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일 때(단수)	여러 개일 때(복수)
단어 앞에 a/an을 붙임	단어 뒤에 -s/-es를 붙임
a book, a car, an album	books, cars, album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John is an artist. 존은 예술가예요.
2. Do you have a boyfriend? 남자 친구 있어요?
3. Did you see my pencils? 내 연필들 봤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conomist Eun-Hee Kim has published a ______ new book about monetary policy.
(A) controversy (B) controversial
(C) controversies (D) controversially

02. Though far from ______, the study conducted by The Cambril Business Center identifies some of the issues affecting business decisions in small companies.
(A) exhaust (B) exhaustively
(C) exhaustive (D) exhausts

01. 경제학자 김은희는 통화 정책을 다룬 논란이 여지가 있는 신간을 출간했다
어휘 monetary 통화(금융)의 controversy 명 논란 controversial 형 논란이 되는

02. 어휘 far from 전혀 ~이 아닌 identify 찾다, 발견하다 exhaust 동 다 써버리다 exhaustively 부 철저하게 exhaustive 형 철저한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2. Describe a picture

인물의 외형 묘사하기

■ 헤어 모양 관련 표현

A woman has **long hair**.
A man is **bald**.
The woman has **a ponytail**.

■ 옷 관련 표현

A woman is wearing **a long sleeved shirt**.
They are wearing **sleeveless shirts**.
She is wearing **a skirt**.

■ 사물의 상태 묘사

He is wearing a suit with **glasses**.
A man is wearing **a tie**.
They are wearing **bracelets**.